

Market Index / 22일

코스피지수 ▲ 3263.88 +23.09	코스닥지수 ▲ 1011.56 +0.57	유가(WTI, 달러) ▲ 73.12 +1.83	환율(원)	1USD 100¥ 1152.11 1043.25	팔매 1112.49 1007.37	1EUR 1374.13 183.66	팔매 1320.51 166.18
---------------------------	--------------------------	------------------------------	-------	---------------------------------	--------------------------	---------------------------	-------------------------

경제포커스 제주부동산 광풍 10년... (상) 심화된 빈익빈 부익부

# 더 벌어진 자산 격차에 없는 서러움만...

한국은행 '제주 부동산시장 구조적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  
부동산 보유 1-5분위차 2012년 5억2000만→작년 14억2000만원

제주로 인구가 순유입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도외인의 도내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부동산가격 상승은 도내 가구별 자산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주택구입 부담도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토대로 자산 양극화 실태와 부동산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관련산업의 높은 변동성이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부동산 자산 격차 확대=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을 보유한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부동산가격(중위값 기준) 격차는 2012년 5억2000만원에서 2020년 14억2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순자산 규모도 1분위(중위값 기준)는 2012년 2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5분위(3억→6억1000만원)는 급증했다.

또 부동산 미보유 비중은 2014년 36.6%에서 2019년 37.1%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기간 2억6500만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 비중은 18.3%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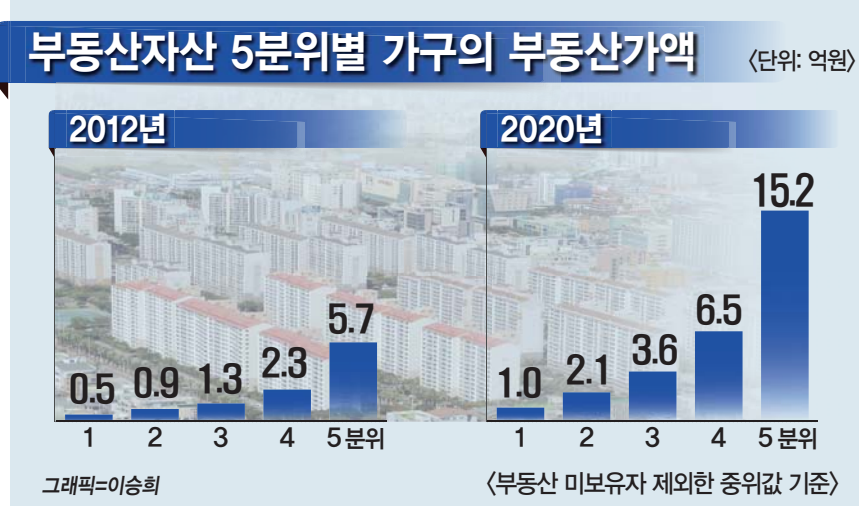
25.8%로 확대돼 결과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자산 증가를 말해준다. 도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4년 45.5에서 2017년 82.6으로 급증한 후 2020년 67.3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평균(57.4)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가중됨을 뜻한다.

▶도외인의 가수요가 부추긴 집값=집값 급등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기업 입주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거주지가 제주가 아닌 도외인의 가수요가 한몫했다.

2008년 도내 주택매매거래량 6388호 중 거주지가 제주가 아닌 도외인의 매입비중은 14.3%(912호)에서 2017년 28.7%로 고점에 달하며 주택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 부동산 활성화세가 잠시 꺾이면서 2019년 도외인의 매입비중은 22.8%로 떨어졌지만 2020년에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매매거래량 1만409호 중 25.9%를 도외인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는 4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 4257호 중 도외인 매입이 28.0%(1191호)로 제주 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2016~2017년 중 도내 민간아파트(전용면적 60~85㎡)의 ㎡당 분양가 상승률은 53.4%다.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5년만 해도 ㎡당 226만원으로 전국평균(272만원)보다 낮았지만 2016년에는 305만원으로 전국(290만원)을 앞서기 시작했다.

또 2005~2017년중 매매가격지수는 아파트가 88.9% 올라 상승폭이 연립(21.7%)과 단독주택(5.9%)보다 높았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2017년 11월(189.2) 고점을 찍은 후 2020년



▶아파트에 대한 수요 여전=주택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2019년 109.2%로 전국평균(104.8%)보다 높지만 아파트 보급률은 30.2%로 전국평균(55.5%)을 하회한다.

2016~2017년 중 도내 민간아파트(전용면적 60~85㎡)의 ㎡당 분양가 상승률은 53.4%다.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5년만 해도 ㎡당 226만원으로 전국평균(272만원)보다 낮았지만 2016년에는 305만원으로 전국(290만원)을 앞서기 시작했다.

또 2005~2017년중 매매가격지수는 아파트가 88.9% 올라 상승폭이 연립(21.7%)과 단독주택(5.9%)보다 높았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2017년 11월(189.2) 고점을 찍은 후 2020년

11월(173.0)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다 2020년 12월(173.2) 상승 전환 후 올해 5월(180.5)까지 상승흐름이 지속됐다.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1개 이상의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풍선효과다.

하지만 앞으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과 입주 물량이 적어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는 수급 측면에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인구분포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개발수요 편중,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선제적인 인프라 조성에 공공부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끝자락, 김녕리 풍경... 양파 수확 22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 하우스감귤 온·오프라인 판촉전

감귤연합회-농협, 7월말까지 500t 판매 목표

한창 제철을 맞은 제주산 하우스감귤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판촉전 행사가 7월 말까지 이어진다.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 중문농협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는 '제주 여름 하우스감귤 건강쟁쟁 페스티벌'을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통한 할인과 특별판매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판행사를 통한 하우스감귤 판매목표 물량은 500t이다. 올해 하우스감귤은 조기가온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6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4% 늘었고, 7월 이후 후기가온과 무가는

도 재배면적이 늘면서 8% 늘어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본부는 전망하고 있다.

하우스감귤 출하량 증가에다 경쟁 수입과일도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특판행사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롯데슈퍼 등 중소유통업체, 농협 농산물도매분사 농산구매국 직영과 협약마트 30여곳 등에서 시식행사와 카드 할인행사, 텀즈데이 등의 이벤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 6~7월중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제주 하우스감귤 페스티벌' 특집방송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 제주상의 오영훈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불확실성 위기 대응위해 규제 개혁을”

제주지역 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인제된 탁월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외국인 면세점 한도 상향 등을 꼽았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국회의원을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상공인들은 우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해외투자유치 건수가 2015년 14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에는 66건으로 줄었고, 이 기

간 투자유치금액도 13억9000만원에서 3억6300만원으로 줄었다”며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기간 동안 법인세, 재산세 등을 특정 업종(IT·BT 등 지역 적합업종)에 한해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련기관이 투자유치활동 연계를 강화해 일관적이고 공통된 인센티브 제공과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마련해 투자의 안정성 확보와 협력 조직의 신설도 제안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규모를 반영해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최대 2000달러까지 높이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2022년 LPG화물차 지원사업 예산 증액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세제개선 연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공장설립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문미숙기자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액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액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롱기'가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건심사 심의번호 2020-GN180079

#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